

■ 광주 저소득 청소년들 '희망의 도전'

“홀라후프 돌려 엄마 수술비 보낼래요”

‘유방암에 걸린 엄마 병원비에 보낼래요.’ ‘중학교에 올라간 언니 교복값과 학원비를 마련하고 싶어요.’ ‘저와 따로 사는 아버지의 생활비를 도와주세요’...

광주 YMCA가 불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한 ‘도깨비 방망이’ 프로젝트(본보 2월13일자 15면)에 접수된 아이들의 소원이 구구절절, 가슴을 아프게 한다.

YMCA에 따르면 최근 프로젝트 접수율 마감한 결과,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YMCA는 지원자 중 5명을 선정, 오는 6월 말까지 스스로 정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경우 ‘도깨비 방망이’(100만원 상당의 소원 해결)를 두드릴 계획이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내건 소원과 도전과제는 불우한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다. A(13)양은 ‘유방암에 걸린 엄마의 병원비’를 위해 ‘하루에 홀라후프 800개를 연속하겠다’고 적었다.

“고사성어 300개를 외우겠다”고 한 B(13)군은 “4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부모님에게 보탬을 지어 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C(15)양은 “대화가는 오빠에게 노트북을



광주YMCA ‘도깨비방망이’ 프로젝트

애뜻한 사연·도전 과제...10대 1 경쟁

사주기’ 위해 “현재의 전교 등수 78등을 37등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실직한 아버지의 직장 구해주기’(13세 남)나 ‘졸업 후 자격증 관련 기업체 취직’(17세 남)처럼, 틀어주기 힘든 소원도 있어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다.

요즘 아이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가 부러워 상처를 받은 듯한 청소년들도 많았다. D(13)양은 휴대전화를 얻기 위해 “하루에 책 3권 읽고 독서록 쓰기”를 내 걸었고, E(16)양은 “중간고사 1등”을 도전과제로 제시했다.

친구들과 달리 넉넉하게 돈을 써

▲도깨비 방망이=광주 YMCA가 불우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희망 프로젝트. 소년소녀 가장·기초생활수급 가정·파산 및 실직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자 중 5명을 선정, 자신들이 정한 도전과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 100만원 상당의 소원을 들어준다.

본 적이 없는 탓에 ‘현금’을 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F(13)군은 “한 달 동안 친구와 싸우지 않고 놀리지 않기”를 다짐했고, ‘키 152cm로 늘리기’(13세 여)나 ‘졸업기 800개 도전’(13세 여) 등을 약속한 아이들도 있었다.

광주 YMCA 서구지회 청소년팀 이운기(34) 간사는 “접수된 도전과제와 소원을 보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도우미 쓴다” 업주 협박 금품 뜯어

노래방 ‘공갈범’ 활개

광주서 33차례 범행

노래방 도우미와 알선자의 처벌을 강화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법)을 악용,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는 공갈범이 활개치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은 26일 도우미를 고용해 술을 판매한 노래방 업주를 협박,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뜯어낸 윤모(39·인천시 부평구·사기 등 전과 25범)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남구 월산동 W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위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 오모(46)씨로부터 17만원을 받아온 등 광주지역 노래방을 돌며 최근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1천여만원

을 뜯어낸 혐의다.

광주 북부경찰도 이날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이모(여·46)씨가 운영하는 모 노래방에 들어가 불법영업을 미끼로 현금 300만원을 빼앗은 김모(39·광주시 북구 운암동·폭력 등 전과 11범)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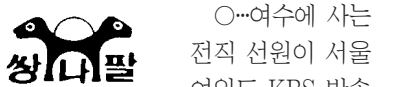
윤씨와 김씨는 자신들이 직접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함께 즐긴 후, ‘음악법’ 처벌 규정을 들먹이며 돈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10월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음악법’은 노래방에서 ▲도우미가接客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BS 폭파” 협박 여수 50대 달미



○여수에 사는 전직 선원이 서울 여의도 KBS 방송국을 폭파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다가 경찰에 달미.

○여수경찰에 따르면 김모(51·여수시 문수동)씨는 지난 25일 밤 민취 상태에서 KBS ‘대조영’을 보던 중 “드라마 줄거리가 마음에 들지않게 전개돼 기분이 나쁘다”며 26일 새벽 1시15분까지 15회에 걸쳐 “KBS 본관을 폭파시키겠다”고 방송국 측에 전화로 위협했다는 것.

○서울 영등포 경찰과 소방서는 신고를 받고 112 타격대원과 소방관 40여 명과 경찰견 4마리를 동원, 1시간30여 분간 방송국을 샅샅이 수색하는 등 한때 소동.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을 추적, 이날 새벽 2시20분께 집에서 잠자던 김씨를 붙잡아 서울로 이송 중인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다는 방침.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거액 금품 받았다” 진정서 경찰, 계좌 추적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철거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남부경찰은 26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J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전 위원장인 정모(56)씨가 철거업자 A씨로부터 철거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진정서 제기와 정씨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 1981년에 지어진 J 아파트는 5층 10개 동에 34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03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판정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반대 부모선언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부모선언을 했다. 참석자들은 “생명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식육(食育)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미 FTA 저지 광주·전남 운동본부’ 소속 학부모 50여 명은 26일 오후 3시 광주 YMCA 백제실에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부모선언’을 했다. 참석자들은 “생명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식육(食育)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위리장기자 jrwi@kwangju.co.kr

3년 새 서장 3명 비리 사적 목표경찰서 ‘초상집’

목포 경찰서 정모(59·총경) 서장이 최근 경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아오던 중 2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서장은 국가청렴위원회와 경찰청에 접수된 투서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았으며, 전임에서의 개인 비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서장의 사직은 취임 두 달 만으로, 지난 1945년 이후 58명의 서장 가운데 ‘최단기’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지난 2004년 10월 제55대 서장으로 부임한 최모 총경도 연쇄 방화사건 유공자 특진 조차 및 금품수수 시비에 휘말리면서 이

듬해 9월 옷을 벗었다. 또 최 총경은 재임시절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당시 전남지방경찰청장인 최모(58) 전 경찰청 차장에게 1천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또 다른 최모 총경도 복지금 1천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가 부임 8개월만인 지난 2004년 10월 ‘불명예 사직’을 했다.

이처럼 최근 3년 사이 3명의 경찰서장이 중도 하차하자 목포 경찰서는 전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with multiple listings for houses and apartments, including prices and features.